

죽음과 트라우마: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얻은 죽음교육을 위한 제언*¹

이희철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Death and Trauma: Sugges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from Psychology of Trauma

Lee, Heec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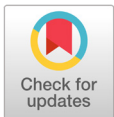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jacob4jx@stu.ac.kr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human death in light of psychological trauma. According to Zigmunt Bauman, current society can be called 'liquid life' in which recency is advocated and the latest human life is experienced. In this current society, the old fashioned is underestimated while the latest is overestimated. A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ancient one or the old fashioned one is substantially dominant in this society. In effect, this society may either disregard the voice of trauma survivors who still experience the deceased or comprehend the voice of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ving.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understand death in light of psychological trauma and to suggest that death is a reality which co-exist with life. This article relies upon Emmanuel Levinas in order to emphasize that death is not just the reality that is experienced at the end of life but the absolute other that co-exists with life. When Christian education attempts to educate people to accept co-existence of death and life, it may help to build the society where trauma survivors are allowed to live together with others though they continue to experience the dead. Acceptance of death as absolute other and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dead are suggested in order to build the society where trauma survivors live together with others. In addition, it is to name the voice of the dead and remember them. When death is acknowledged to be the absolute other, we can critically reflect upon our society not through the eyes of the living but through the eyes of the dead.

Keyword: death, reality, psychology of trauma, christian education, Emmanuel Levinas, Zigmunt Bauman, absolute other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73-85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19>

Received: October 25, 2020

Revised: December 18, 2020

Accepted: December 28,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 본 논문은 2020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2020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기초하여 수정 보완된 논문임.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들어가는 글

현대성 연구의 거장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현대 생활을 액체의 삶(liquid life)이라고 부른다. 액체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는 액체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액체의 삶은 액체와 같은 현대사회(liquid modern society)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액체와 같은 현대사회는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환경조건이 더 빠르게 변화하여 구성원들이 행동을 습관과 일상으로 통합할 수가 없다. 액체의 삶과 액체의 사회는 서로에게 공급하고 활력을 준다. 액체의 사회와 같이 액체의 삶은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거나 한 진로를 유지할 수 없다. 액체의 사회에서 개인성취는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다. 재산이 갑자기 빛으로 변하고, 능력이 무능력으로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행동과 계획이 수립되는 조건들은 행위자들이 충분히 배울 기회도 가지기 전에 순식간에 고령화되어서 쓸모없게 된다. 과거에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전략과 기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은 잘못된 조언이다. 과거의 시도가 급속히 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과거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트렌드는 이제는 너무나 자주 위험하고 잘못된 조언이 된다. ... 액체의 삶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다. 그래서 액체의 삶은 신속하고 고통이 없는 결말이고 이러한 고통이 없는 결말이 없는 새로운 시작은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가장 도전이 되는 순간이고 가장 분노하게 하는 두통거리이다. 액체의 삶을 살아가려면 습득하기 전에 제거 또는 버림이 선행되어야 한다.²

지그문트 바우만이 현대인의 삶을 ‘액체의 삶’(liquid life)으로 비유하면서 현대인의 삶을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결말이 없는 ‘새로운 시작’을 끝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규명한다. 바우만과 마찬가지로 신영복은 변화속도가 빨라서 과거 지식이 금방 폐기되는 현대사회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사회가 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로화’(早老化)된다고 비판한다.³ 과거 지식과 정보가 금방 폐기되는 현대사회에 살기 때문에 현대인의 삶이 새로운 시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종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별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별이 없기에 애도가 없다. 현대인의 삶이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죽음을 위한 자리가 없다. 어쩌면 죽을 여유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알아차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죽음을 경시한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죽음을 경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⁴ 죽음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경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은 현대인에게 무의미하다고 여겨져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죽음을 경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⁵ 죽음을 직면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⁶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죽음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일 수 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타인의 죽음경험에 자주 노출되면서 죽음에 익숙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와 SNS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 쉽게 노출되어있다. 폭력,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과 같은 ‘죽다 사는’ 경험에 많이 노출된다. 그러므로 죽음경험에 무뎌지면서 죽음을 경시하게 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에 잦은 노출 때문에 익숙해진 죽음을 경시하는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죽음교육을 위한 제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필자는 죽음을 트라우마와 연관시키고자 한다. 죽음과 생을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공존하는 ‘실재’로서 보려고 한다.⁷

죽음에 대한 연구가 많고, 트라우마에 대한 독립된 연구는 많다. 그렇지만 죽음과 트라우마를 연결시켜서 트라우마 심리학의 관점에서 죽음을 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트라우마 심리학의 관점에서 죽음을 논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의의가 있다. 트라우마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생의 마침이 아니다. 죽음은 생의 마침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트라우마 심리학의 관점에서 필자는 죽음을 생과 함께 머무는 ‘실재’로서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죽음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낯선 타자로서 이해하려고 한다. 죽음은 불쑥 찾아오는 절대적 타자이다. 죽음은 주체의 주관적 경험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의 자제력과 통제를 초월하는 절대적 타자이다.

필자는 위의 논지를 논하기 위해서 사례를 제시하고 트라우마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심리학적 분석에서 얻은 생각에 근거하여 죽음교육을 위한 기독교 심리학적 제안을 하면서 본 논문을 결론지으려고 한다.

II.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심리학의 이해

1. ‘김씨’의 사례

필자가 만난 ‘김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미 중학생 때 죽었어요. 아버지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할 때 이미 저는 죽었어요.” 그녀는 소녀였을 때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소녀가 자꾸 나타난다.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목이 조여들어 숨이 막힌 채로 허우적거리는 그녀를 남편이 깨운다. 심하게는 심폐소생술을 한 적도 있다. 악몽을 꾸면서 ‘김씨’는 소녀였을 때 자기 자신을 다시 산다. 냄새가 나도 몸을 씻지 않는 적도 있다. 몸을 씻으면 아버지가 또 목을 조이면서 자신의 몸을 요구할까봐 겁이 나서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신은 이미 결혼하여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도 ‘죽은 그 소녀’를 지금도 만나고 있다.⁸

위의 사례에서 ‘김씨’는 죽음을 경험하였다. 그 죽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엄청난 경험이었다. 그래서 ‘김씨’에게는 그 경험이 트라우마였다. 중학교를 다니는 소녀였을 때 아버지로부터 목조임을 당하며 성폭력을 경험했다. 이 경험을 할 때 소녀였던 자신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 죽음 경험이 트라우마였다. 이 끔찍한 경험을 할 때 소녀였던 자신은 이미 죽었고 소녀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되었다. 소녀였을 때 성폭력을 당하던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소녀였을 때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소녀, 이미 죽은 자가 지금도 자신과 함께 살고 있다. 죽음이 과거가 아니다. 현재에도 죽음이 실재한다. 죽음이 엄습한다. ‘김씨’가 경험한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지만, 타자화된 죽음이다. 자신의 죽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이다. 소녀였을 때 자신이 죽었지만, ‘김씨’는 살고 있다.

죽음은 인간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지만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경험일 수 있다. 자살과 같이 계획된 죽음 또는 지병으로 인한 예견된 죽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죽음도 준비할 수가 없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트라우마 경험과 연관이 깊을 수 있다. 죽음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돌연사이다. 생각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이다. 돌연사는 주위 사람들을 허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 정신적으로 우울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둘째, 폭력, 자해, 등으로 초래된 죽음이다. 폭력은 개인이나 집단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초월한 힘이다. 폭력은 비자발적인 경험이다. 셋째, 예방 가능했던 죽음 또는 무작위로 일어난 죽음이다.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후회하곤 한다. 넷째, 자녀의 죽음이다. 가족의 죽음만큼 안타까운 죽음은 없을 수 있다. 다섯째, 학살과 사형 등으로 일어나는 다수의 죽음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린치와 한국에서 있었던 제주 4.3 사건은 사형을 빙자한 학살이었다. 여섯째, 생존에 위협을 주는 죽음 경험이나 타인의 죽음의 목격이다.⁹

5.18. 민주항쟁운동, 9/11사건, 세월호 참사, 등은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이고 동시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무작위로 일어난 죽음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위의 여섯 가지 경우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국가적 폭력이었고, 다수의 죽음을 초래했고, 많은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복합적인 죽음 경험은 트라우마 경험 정도를 더 심하게 한다.

위에서 제시된 ‘김씨’의 사례는 복합적인 죽음 경험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신뢰하는 국가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이었다면, ‘김씨’의 사례는 신뢰하는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험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해결되었다. ‘김씨’의 사례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신은 결혼을 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낳았지만 ‘김씨’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중학생 소녀’로서 자신의 모습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난다. ‘그 소녀’는 죽었다고 여기고 기억속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꿈속에서 ‘죽은 소녀’를 만나고 있고 자신의 몸을 요구하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바우만이 명명한 액체사회에서 우리가 액체의 삶을 살다보니 죽음을 위한 여유 공간이 없다. ‘시작’과 ‘출발’이 반복되는 사회에서 살다보니 ‘끝’과 ‘종결’에 익숙하지 않다. 생일파티 또는 결혼식에는 익숙해도 장례식 또는 임종과정에는 익숙하지 않다. 생일파티와 결혼식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용이한 다양한 곳, 즉 교회, 호텔 또는 역세권에 있는 예식장에서 일어난다. 반면에 장례식은 ‘장례식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이별과 애도가 낯설다. 현대사회에는 죽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없기에 죽음의 존재와 죽음을 대하는 방법을 토론하거나 연습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김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죽음경험이 꿈같이 무의식적인 공간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2. 트라우마 심리학으로 죽음 이해하기

서두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낯선 대상’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소외된 대상’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필자는 죽음을 낯설지만 실재하는 존재라고 주장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 낯선 대상을 만나면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경계하게 된다. 낯선 대상을 멀리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낯선 존재를 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낯선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변방으로 소외시키거나 그 존재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거부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외국인노동자, 아동, 여성 등의 약자들을 변방으로 소외시켜서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한다. 산자들에게 죽음은 낯설기 때문에 변방으로 소외시키고자 한다.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직업을 가진 김완은 에필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는 늘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 사실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양면으로 된 동전처럼 한쪽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경도되고 그 엄숙함에 지나치게 몰입한 탓에 죽음에 관한 언급 자체를 불경한 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도 그런 면에서는 급진적이라고 할 만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묻는 행위, 인간이 죽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과 존재에 관한 면밀한 진술은 오히려 항바리어스가 되어 비록 잠시나마 발열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굳세게 만드는 데 참고할 만한 기전機轉이 되리라 믿습니다.¹⁰

죽음에 대한 언급을 불경하게 여기고 죽음의 존재를 변방으로 소외시켜서 부정하려고 하였지만 김완이 지적하듯이 죽은 곳에서 삶과 존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낯선 타자로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낯설다고 할 때는 낯선 타자가 주체와 다르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낯설다고 할 때는 죽음이 삶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죽음은 삶과 다르기 때문에 죽음이 삶의 일부가 되거나 삶의 연속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은 살아있는 자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 타자이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은 항상 낯선 모습으로 실재한다.

‘김씨’와 같은 트라우마 생존자는 원하지 않는 순간에 죽은 자를 경험한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죽은 자가 불쑥 찾아온다. 죽은 자는 악몽에 나타나는 불청객이다. 죽은 자는 환청과 환시로 침투하는 불청객이다. 악몽에서 ‘김씨’가 어제 만난 죽은 자의 모습과 오늘 환시를 통해 만난 죽은 자의 모습이 다르다. 죽은 자는 때로는 살아 있는 자를 괴롭힌다. 때로는 살아 있는 자를 달래고 위로한다.¹¹ 그래서 죽은 자는 항상 낯선 모습으로 경험된다.

트라우마와 죽음을 연결시켜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트라우마의 정신의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트라우마는 그리스어 τραῦμα에서 시작된 언어로서 어원적으로는 육체적 상처를 의미했다. 그러나 차츰 정신적 상처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정신의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예리한 물건이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내부를 찌르면서 침투한 상태”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치료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의학적 증상은 침투(intrusion), 둔감(numbing), 각성(hypervigilance), 악몽(nightmare),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 등이다. 트라우마를 겪음으로 직업수행능력장애(occupational disabilities), 인간관계문제, 소외 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증상들에 대처하는 치료방법도 다양하다. 트라우마 기억이 생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침투하여 생존자를 괴롭힌다. 트라우마 증상을 견딜 수 없어서 그 경험과 연관된 감정, 기억, 감각 등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의식중에 연관된 기억, 감정, 감각으로부터 둔감해진다.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를 과거기억저장소로 보내지 못해서 현실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 경험하면서 각성된 상태가 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처하는 정신의학적 접근은 단계별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 악몽과 플래시백(회상)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는 약물치료가 적절하다. 약물치료는 수면을 촉진시키고 변연계(limbic)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serotonin)재흡수 억제제는 과거기억에 고착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현재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돕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
- 2)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이 내려진 후 트라우마 기억들이 침입하여 지배할 때, 노출과 둔감화가 환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다.
- 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다른 단계로 더 진행되는 경우에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하는 대상과 상황들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결국에 트라우마 기억이 침투하는 이유를 타인들에게서 찾기도 한다. 그러면 무력감, 분노, 의심, 인간관계문제가 다루어야 할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인간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영역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¹²

위에서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하였듯이 트라우마는 부지불식간에 내부에 침입하는 상처이다. 트라우마의 대표적 증상인 침투(intrusion)는 과거 기억의 재경험이다. 알지도 못하는 때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과거 기억이 엄습한다. 과거 기억을 다시 사는 것이다. 죽음 경험이 다시 경험되는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경험되기 때문에 죽음 경험은 항상 낯설다.

미공군 정신과의사로서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트라우마와 죽음을 연구한 정신의학자 로버트 리프턴(Robert Jay Lifton)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트라우마는 죽음경험이다. 죽음과의 만남은 마비를 가져온다.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예상치 않은 갑작스런 경험이다. 갑작스런 경험에 일시적인 마비가 생긴다. 마비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적 단절이다. 마비는 억압과 다르다. 물론 마비는 억압의 요소, 소외의 요소, 부정의 요소, 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마비는 감정의 단절이다. 죽음과의 만남으로 감정이 단절이 되면 그 순간은 경험과의 단절이다. 경험과의 단절은 삶과의 단절이다. 삶과의 단절에서 시작이 있을 수 있다.¹³

위에서 리프턴이 주장하듯이 트라우마는 죽음 경험이고 죽음 경험으로 인해 순간적인 마비증상이 올 수 있다. 마비증상은 삶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이다.¹⁴ 이 순간에는 삶으로부터 단절되었기에 순간적으로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로이다. 리프턴은 이 순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의 순간(transitional period)이라고 보고 있다. 트라우마 경험이 죽음 경험이기 때문에 삶과의 단절일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바우만이 지적하듯이 결말이 없는 새로운 시작만을 반복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죽음이 없는 새로운 삶의 반복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새로운 시작’을 반복하는 액체사회에 살기 때문에 ‘끝’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 결말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 죽음은 항상 낯설지만 낯선 대상으로서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만나지 않으려고 의학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죽음을 소외시키고 있다. 수잔 손택(Susan Sontag)은 사진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고통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해 전쟁을 시각적으로 경험한다. 전쟁 경험을 하지 않고도 전쟁의 잔인함과 인간의 사악함을 논할 수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타인의 고통을 판단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공감할 수는 없다.¹⁵ 오히려 사진기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익숙해지면서 공감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죽음에 익숙해지지만 죽음이 여전히 ‘낯선 대상’ 또는 ‘소외된 대상’으로 머물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죽음’이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는가? ‘죽음’이 ‘소외된 대상’으로 머물러도 되는가? 위의 사례에서 나오는 ‘김씨’와 같이 죽음을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죽음’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야 하는가?

3. 죽음교육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

죽음을 경시하거나 죽음 경험을 회피하는 액체사회에서 ‘김씨’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죽음을 절대적 타자로서 인정하고 죽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죽음의 목소리를 들을 때 현실을 반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눈을 돌린다. 그는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9절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구주(救主)임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¹⁶ 예수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산자와 죽은 자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죽은 자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함께 ‘현존’한다. 이것이 바로 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삶의 진면목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현존하는 자들에게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며, 과거에 존재했던 자들에게는 희망을 내포한다.¹⁷

몰트만은 죽음과 부활에 눈을 돌리면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와 현존한다고 주장하면서 몰트만은 살아 있는 자들의 역할을 말한다.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살아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한다. 장례식이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이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서 살아 있는 자들이 기도를 통해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의 화평을 도모하기를 권한다.¹⁸

몰트만은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공존과 화평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살아 있는 자의 역할을 강조하다보면 죽은 자의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역할이 추상적이게 되거나 부차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죽은 자와 공존과 화평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의 역할을 강조하다보면 죽은 자는 공존을 위한 객체로서 머물게 된다. 그렇지만 트라우마와 죽음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에 죽음을 공존보다는 ‘실재’로서 이해할 수 있다. 공존한다고 할 때 어떻게 공존하는가라는 질문에 몰트만은 살아있는 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 트라우마와 죽음을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죽은 자의 ‘실재’, 즉 죽은 자의 역할도 강조하게 된다. 트라우마 생존자는 살아있지만 죽음과 만나고 있다. 죽은 자의 소리를 듣고 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는 죽은 자가 과거가 아니라 현실 속에 실제로 경험된다. 그러므로 트라우마 생존자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이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몰트만이 죽은 자와의 공존과 화평을 위해 살아있는 자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반면에 죽은 자를 절대적 타자로서 인정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트라우마와 죽음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죽은 자는 절대적 타자가 되며 죽은 자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자에게 투사된 목소리가 아니라, 실재의 목소리가 된다. 그러므로 낯선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의 기억이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때 섬뜩 놀랄 수 있다. 죽은 자와 만날 때 떨릴 수 있다. 갑작스럽기 때문이고 낯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죽음의 목소리는 절대적 타자로서 실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목소리는 억압되지 않고 살아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은 자의 소리를 들을 때 살아있는 자는 현실을 반추할 수 있다. 절대적 타자와의 대화가 없이는 현실을 반추할 수 없다. 절대적 타자와 대화가 없이는 오직 현실에 주체적 생각과 관념을 투사할 뿐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타자로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살아있는 자는 현실을 반추할 수 있다.

손원영은 죽음교육의 새 방향으로서 세 가지 교육목적을 제시한다. 첫째는 ‘해석학적 프락시스’를 목표로 둔 죽음교육이다. 현세와 내세를 적절하게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전제로 한 다양한 해석에 근거한 죽음교육이다. 둘째는 ‘해방적 프락시스’를 목표로 둔 죽음교육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이라는 기독교적 이해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악의 세력과 싸우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영성적 프락시스’를 목표로 둔 죽음교육이다. 이 죽음교육은 거룩하게, 즉 바르게 죽음을 준비하게하고 타인이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 죽음교육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²⁰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길 수 있지만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죽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손원영이 주장하듯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죽음은 낯선 절대적 타자이다. 절대적 타자로서 인정하면서 죽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죽음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김씨’는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경험을 다시 한다. 트라우마 생존자는 현실과 비현실, 현재와 과거를 만나게 하는 중재자이다. 죽음과 삶을 만나게 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트라우마 생존자를 소외시키기 보다는 트라우마 생존자를 통해 죽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죽은 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현실을 반추할 수 있다.

둘째, 죽음의 목소리를 명명하고 기억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낯설다. 죽음을 회피하는 사회에서 죽음은 낯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죽음은 절대적 타자로서 계속 머물러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소리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고 기억하여야 한다. 죽음의 목소리를 명명하고 기억하여줌으로서 죽음과 삶이 만나게 되고 삶이 더 의미가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거기 너 있었는가”는 흑인영가이며 기독교 찬송가 147장에 기록되어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때에 당신은 어디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찬송이다. 십자가 처형은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죽음 경험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쓰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처형되는 억울한 죽음이다. 제자들과 여인들을 비롯한 추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는 그 당시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찬송가 가사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이미 끝났다. 십자가 처형은 이미 끝났고 죽음조차도 과거가 되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일로 떨린다.” 죽음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죽음 경험으로 지금도 때로는 떨곤 한다.

그 십자가 밑에서 직접 목격하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 처형 사건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죽음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가끔씩 떨곤 한다. ‘세월호 참사’는 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도 섬뜩 섬뜩 죽은 딸이 찾아온다. 그러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몸이 떨린다. 잠을 자지 못한다. 목을 조르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지만 ‘김씨’는 여전히 죽은 아버지를 꿈속에서 그리고 삶속에서 만나고 있다.

“거기 너 있었는가”는 죽음을 명명하고 기억하는 영적인 사역의 요청이다.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죽음을 낯선 타자로서 만나라는 요청이다. 낯선 타자로서 찾아온 죽음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만나서 죽음의 목소리를 듣는 영적인 사역의 요청이다. 각각의 죽음 경험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라는 영적인 사역의 요청이다. 그렇지만 죽음을 명명하기와 기억하기는 죽음의 목소리를 듣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첫 번째 교육적 제안이 전제되어야 죽음을 명명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죽음을 경험한 자를 위한 모든 사역(목회적 돌봄, 예전, 기도, 성경읽기, 함께 있음, 등등)은 죽음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는 영적인 사역이다.²¹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만날 때 죽음은 낯설다.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 아니다. 개인적 경험이 투사된 만남이 아니라 절대적 타자로서 만남이기 때문에 죽음은 낯설다. 그러므로 죽음을 경험한 자와 만남은 낯선 만남이다. 죽음을 경험한 자와 함께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말하기 보다는 죽음을 경험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머물 때 그 만남 자체가 명명되고 기억될 수 있다.

죽음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는 과정은 죽음을 낯선 절대적 타자로서 만나야 가능하다. 죽음이 낯선 타자로서 다가올 때 죽음을 절대적 타자로서 만나야 한다. 이것이 환대이다.²² 죽음을 환대할 때 죽음은 사회적 현실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주체의 투사된 생각으로 타인을 환대할 경우 타인은 절대적 타자가 아니라 투사된 주체로서 다가온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환대한다는 것은 주체성을 버리는 것이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환대하기 위해 낯선 타자로서 죽음의 낯선 목소리에 열려 있어야 한다. 낯선 목소리에 열려 있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에 취약해야 한다. 엠마누엘 레비나스에 의하면 ‘취약함’(vulnerability)은 원인(causality)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하게 타자와의 관계에 있다. 자극을 받아서 나약하여짐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약하여짐을 말한다. 그래서 ‘취약함’은 타자에 대한 몰입이거나 타자에게 다가감이다. 타자와의 관계를 위해 ‘취약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약함’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수동적 현상이 아니라, 절대적 타자를 위한 적극적인 ‘부담’이다.²³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현실에 ‘김씨’ 또는 세월호 희생자 같은 죽음의 목소리가 절대적 타자로서 충분히 울려 퍼지고 그 목소리가 명명되고 기억될 때 죽음이 회피되거나 거부되기보다는 이 현실 사회를 더 의미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

III. 결론

필자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죽음과 트라우마를 연결하여 죽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 죽음을 경시하거나 회피 또는 극복하려는 시대적 상황에서 트라우마 생존자 같은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제안을 시도하였다. 죽음은 낯선 타자이고 절대적 타자라고 전제하였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이해할 때 죽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낯선 타자로서 죽음을 만나고 죽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죽음이 사회적 현실에 목소리를 낸다고 주장했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과 함께 머물면서 죽음 경험을 명명하고 기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5년 12월 1일,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에서 로사 파크스(Rosa Parks)는 버스를 탔다. 그녀는 앉지 말아야 할 좌석에 앉았다. 버스 앞쪽에 위치한 백인 전용 좌석이었다. 인종차별이 당연하였던 그 당시에 백인 전용 좌석에 앉는 선택은 엄연히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이었다. 나중에 어느 사람이 그녀에게 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녀는 인종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로사 파크스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했다고 한다. “피곤했거든요.”²⁴

로사 파크스는 이 날만 피곤하지는 않았다. 인종차별로 학대와 멸시를 당하며 오랫동안 피곤하고 지쳐있었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시스템에 맞추어 살아야 하기에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 있었다. 생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쳐있는 상태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운동은 시작되었다.

‘생기’가 아니라 ‘지침’에서 저항운동이 시작되었듯이 삶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반추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삶이 아니라 죽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회가 죽음을 회피하려고 시도할 때 기독교 교육은 죽음을 절대적 타자로서 만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만나서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반추하여야 한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환대하면 죽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속한 ‘현실’을 반추할 수 있다.

요약

본 논문에서 죽음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연결하여 죽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 지그문트 바우만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항상 최신의 것을 경험하는 ‘액체사회’이다. 현대사회는 낡은 것이 존재하지 못하게 최신의 것만이 경험되는 사회이다.

바우만의 비평에 동의하여볼 때 현대사회는 낡은 것을 경시하는 풍조가 지배적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죽음을 경시하거나 회피 또는 극복하려는 사회적 경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경험한 트라우마 생존자의 목소리는 간과되거나 살아있는 자의 관점에서 죽음의 목소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라우마 심리학의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면서 죽음을 삶과 공존하는 ‘실재(實在)’라고 논한다.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에 의지하여 삶의 변방 또는 삶의 종결에서 경험하는 실재가 아니라 삶과 공존하는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 삶과 공존하는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이해하면서 시도하는 죽음교육은 죽음을 수시로 경험하는 트라우마 생존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트라우마 생존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죽음교육을 위해 필자는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트라우마 생존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죽음교육으로서 죽음의 목소리를 명명하고 기억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절대적 타자로서 죽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할 때 삶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적 현실을 반추할 수 있다.

주제어

죽음, 실재, 죽음교육, 트라우마 심리학, 트라우마, 엠마누엘 레비나스, 지그문트 바우만, 절대적 타자

참고문헌

- 김완. 『죽은 자의 집 청소』, 파주: 김영사, 2020.
- 박영식. 『죽음과 죽음이후에 관한 그리스도 신학의 이해』 『종교교육학연구』 제59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손원영,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신영복.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파주: 돌베개, 2004.
- 유호종, 『떠남 혹은 없어짐: 죽음의 철학적 의미』, 서울: 책세상, 2001.
- 윤덕규. 『외상후 성장으로서 위르겐 몰트만의 신앙경험과 연대』 『목회와상담』 제18호(서울: 한국목회상담학회, 2012).
-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 현대의 목회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86권(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13)
- Bauman, Zygmunt. *Liquid Life*. Malden, MA: Polity Press, 2005.
- Brown, Susan Suchocki. “Pastor in the Aftermath” in *The Bloomsbury Guide to Pastoral Care*, edited by Bernadette Flanagan and Sharon Thornton. New York: Bloomsbury, 2014.
- Caruth, Cathy. *Listening to Trauma: Conversations with Leaders in the Theory and Treatment of Catastrophic Experience*. Baltimore, ML: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

Levinas, Emmanuel. *Humanism of the Other*.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6.

Maynard, Jane F. *Transfiguring Loss: Julian of Norwich as a Guide for Survivors of Traumatic Grief*. Pilgrim Press, 2006.

Moltmann, Jergen. *Im Ende - der Anfang Eine kleine Hoffnungslehre*, 박미숙,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 작은 희망의 이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A Broad Place: An Autobiography*. Tr.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Palmer, Parker. *Let Your Life Speak*, 홍윤주,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서울: 한문화, 2007.

Sontag, Susan. *Regarding Pain of Others*, 이제원, 『타인의 고통』, 서울: 이후, 2004.

Van der Kolk, Bessel A., McFarlane, Alexander C., and Lars Weisaeth,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Endnote

- 1 본 논문은 2020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2020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기초하여 수정 보완된 논문임.
- 2 Zygmunt Bauman, *Liquid Life* (Malden, MA: Polity Press, 2005), p. 5. 필자는 바우만이 말하는 “신속하고 고통이 없는 결말”을 “상실감이 없는 이별”이라고 해석한다. 상실감을 느낄 여유도 없이 신속하게 이별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 3 신영복,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파주: 돌베개, 2004), 76쪽.
- 4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로 높다. <https://spckorea-stat.or.kr/international01.do>
- 5 박영식,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한 그리스도 신학의 이해』 『종교교육학연구』 59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9), 173쪽.
- 6 유호종, 『떠남 혹은 없어짐: 죽음의 철학적 의미』 (서울: 책세상, 2001), 23쪽.
- 7 필자는 공존보다는 ‘실재’(reality)에 방점을 찍는다. 다수의 논문들은 생과 죽음이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생과 죽음이 공존하지만 어떻게 공존하는가? 생을 유지하기 위해 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죽음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죽음을 절대적 타자, 신비적 타자로서 관계 속에 드러나는 그 실재의 모습과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 8 내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록한다.
- 9 Jane F. Maynard, *Transfiguring Loss: Julian of Norwich as a Guide for Survivors of Traumatic Grief* (Pilgrim Press, 2006), p.19.
- 10 김완, 『죽은 자의 집 청소』 (파주: 김영사, 2020), 249쪽.
- 11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대표적 증상들 중에 하나인 침투(intrusion)이다. 과거 기억이 생각속으로 침투한다. 트라우마 경험이 환청, 환시를 통해 침투한다.
- 12 Bessel A. van der Kolk, Alexander C. McFarlane and Lars Weisaeth,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pp. 476-477.
- 13 Cathy Caruth, *Listening to Trauma: Conversations with Leaders in the Theory and Treatment of Catastrophic Experience* (Baltimore, ML: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 p. 29.
- 14 아래에서 언급되는 기독교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공군의 공습으로 옆에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며 경험한 트라우마를 진술한다. 몰트만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고 진술한다. Jürgen Moltman, *A Broad Place: An Autobiography*, tr.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p. 17.
- 15 Susan Sontag, *Regarding Pain of Others*, 이제원, 『타인의 고통』 (서울: 이후, 2004).
- 16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하심이라”
- 17 Juergen Moltmann, *Im Ende - der Anfang Eine kleine Hoffnungslehre*, 광미숙,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 작은 희망의 이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84쪽.
- 18 위의 책, 186쪽.